

지역 소식통

김제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김제시 평생학습관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상반기 정규 교육프로그램 3개 분야 46개 과목 609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은 딱 제조기능사, 드론의 이해와 실전 등 취·창업에 위한 자격증 교육과목 11개, 쉽게 따라 하는 홈베이킹, 프랑스 자수 등 취미와 여가를 위한 교육 과목 23개, 중국어, 생활영어 등 역량 개발과 자기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과목 12개로 구성, 오는 3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주간 운영된다.

이번 상반기에는 직업능력분야 과목으로 아동 창의 미술 전문가 2급 및 실버 원예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였고, 문화예술분야로는 너른튼 순환체조, 이점회수체화, 오키나와 초급, 비트요가, 필라테스 과목을 신설하였다. 인문교양분야로는 차문화인성교육, 인터넷 마케팅, 뉴로피드백 훈련과정 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개인 역량·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선착순 방문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발생 등 필요할 경우 비대면 강의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보건소가 15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현재 질환이 없으며 만19세 이상 60세미만인 김제시민 또는 관내 직장소재자가 위치한 자 중에서 건강위험요인 1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24주간(6개월) 진행된다. 먼저 오는 3월에 초기검진을 통한 대상자에 선정하고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는 손목시계형 활동량계가 무료로 지급하여 어플과 활동량계를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건강문 제점과 관련된 미션을 부여하여 미션수행 우수자에게는 순위별 소정의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김제시, 민주당·국민의힘과 함께 실시 설계비 20억원 확보

김제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처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21년 국·도비 예산 8,021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소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91억원 증액된 3,472억원으로 민선7기 출범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등 국가 및 타 기관 직접사업은 4,549억원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총사업비 350억원) 실시 설계비 20억원은 김제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이 낳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호남동행 국회의원 17명과 함께 전북도를 방문, 14개 시장·군수와 연석회의를 가졌으며 김제시는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과 제 2지역구로 인연을 맺게 됐다. 국가예산은 1년 전부터 도청과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설득해도 쉽지 않은데 호남동행 인연을 계기로 10월 30일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을 방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이 상임위 심사가 마감돼 정부예산안 추가 반영이 힘든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산자위 예결위원으로서 증액 예산에 포함해 주었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소통하며 끝까지 행쳤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20억원 확보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국회의원님들의 단합과 물심양면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발전의 마중물인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여·야 및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폭 넓은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조기 증축을 통해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정부 그린 뉴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살고싶다 김제'를 주제로 SNS 위주 비대면 인구정책 캠페인을 펼쳤다.

'살고싶다 김제'

시, 설 연휴 기간 언택트 인구정책 홍보

김제시는 설연휴기간에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직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이 줄어들 것을 고려하여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살고싶다 김제'를 주제로 SNS 위주 비대면 인구정책 캠페인을 펼쳤다. '살고싶다 김제' 인구정책 홍보는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이련한 유년의 추억을 떠올리며 김제에서 살고 싶은 귀향 감성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김제시가 제작한 '살고싶은 그 곳, 김제' 카드뉴스에는 전일장려금(1인당 20만원), 전일이사비(세대당 30만원), 결혼축하금(1천만원, 4회분할) 등 전입시 받는 혜택과 소규모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3세대~19세대, 8천만원~2억원한도), 농촌주택신축 자금 등

자 지원 등 귀촌귀향 정보를 수록했다. 김제시는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김제역, 서김제IC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으며, 연휴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용터미널과 김제역에서 오고 가는 귀성객 대상으로 김제사랑 주스갯기, 시민결에 인구정책 알리기에 주력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타지역 계층별 체감형 인구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있는 김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22년 공공비축미 '신동진·해품' 선정

신동진 단일 품종서 재해위험 분산·종자 확보 위해 2개 품종 결정

완주군이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신동진, 해품벼를 선정했다. 완주군은 벼 재배 전문농업인 단체 대표 7명, 벼 재배면적 200ha이상 7개 읍면 추천 7인으로 구성된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심의회 결과 신동진, 해품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14명 전원 참석했다. 심의회 개최에 앞서 완주군이 읍면

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개 읍면에서 신동진 단일품종 매입을 8개 읍면에서는 신동진과 품종추가를 원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심의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신동진과 해품 2개 품종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신동진과 조평, 미품 등 2개 품종 수매품종으로 매입했으나 2021년에는 신동진 단일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했다.

위원회에서는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수매할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호우 등의 재해 상황에 대비가 어렵고, 평야부와 산간부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과 양파, 마늘 후작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일품종보다는 2개 품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해품벼는 중생종으로 도복에 강하고 밥맛이 양호해 습답과 이모작재배지와 산간부 농지에 재배가 가능한 적합품종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여성인턴 채용 인건비 1인 최대 380만원 지원

완주군이 기업에 여성인턴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는 1인 최대 380만원의 여성인턴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1 인턴여성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인턴 신규채용기업에게 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근무자와 채용기업에게 새일고용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4대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로,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일팀 임미현 팀장은 이번 인턴 지원금으로 총 1억5000만원을 확보 했으며, 이번 모집으로 총 42명의 여성인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여성인재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받음으로 구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넓혀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여성인턴은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일팀 (063-262-1785)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엔에스미트, 한부모가정에 돈두육 400kg 기탁

김제시(시장 박준배) 여성친화일촌 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유)엔에스미트(대표 나성만)에서 최근 김제시에 500만원 상당의 돈두육 꽃살 400kg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돈두육 꽃살은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소연숙), 주민복지과(과장 송성용)를 통해 한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유) 엔에스미트는 2015년 설립 당시부터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우수 기업으로도 정평이 있는 업체이다. 평소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

으며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돈육 특수부위 가공업체이다. 엔에스미트 관계자는 이번 후원 물품은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고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불경기에도 김제시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으로 행복한 김제 만들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